

‘세계사’의 맥락에서 북한을 보다

임명묵*

[서평] 벤자민 영(2026), 『충, 게릴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북한과 제3세계 관계사』,
너머북스, 375쪽

1. ‘냉전’과 ‘반제’의 기억이 돌아오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사건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나아가 동구권의 붕괴는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해석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담론이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제시한 ‘역사의 종언’이었다. 후쿠야마는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자유민주정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치와 경제의 보편적 문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류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이념적 경쟁이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대의 맥락에서 이는 20세기 후반 인류가 경험한 두 거대한 역사적 과정의 종식을 의미했다. 하나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초강대국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워 벌인 냉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모색했던 탈식민화의 시대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1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던 소련의 ‘제2세계’ 공산주의 블록이 붕괴하면서, 양 진영 사이에서 선택지를 고민하거나 제3의 발전 모델을 모색하던 탈식민 정치는 새로운 갈림길에 놓였다. 이제 탈식민 국가들의 관심은 세계화라는 게임에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 월간 RIO 편집위원

로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계화 정치로 향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펼쳐진 세계화의 맹렬한 기세는, 초국적 자본의 힘에 맞서 풀뿌리에 기반한 지구적 연대를 모색하는 반세계화·대안세계화 정치의 성장을 그 반대급부로 자극하기도 했다.¹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 세계 각지에서 강대국 간 경쟁은 물론 전쟁마저 일상적인 현실이 되면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사라진 듯했던 20세기의 역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자신들이 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황금의 10억’(Golden Billion)에 맞서는 ‘세계 다수’(World Majority)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비서방 국가들과의 교역, 안보, 문화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²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 제3세계 국가들과 구축했던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축출한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은 러시아의 초청으로 202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연설을 해 화제를 모았다.³ 마치 반세기 전인 1970년대에나 익숙했던 풍경들이 다시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화제의 중심에 오른 중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반제국주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미국의

1 2000년 무렵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다룬 고전적 저작으로는 다음이 유명하다. 벤자민 바버(2003), 박의경 옮김, 『지하드 대 맥월드』, 문화디자인.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가 중국의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담은 책으로는 다음을 참고. 에드워드 S. 스타인펠드(2011), 구계원 옮김,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에쎈.

2 Angela Stent (2024), ‘Russia, the West and the “World Majority”’, *Russia Matters*, 2024, 1, 25., <https://www.russiamatters.org/analysis/russia-west-and-world-majority> (접속일: 2026. 7. 14.).

3 이브라힘 트라오레의 202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설 전문은 다음을 참조. ‘Russia – Africa: Captain Ibrahim Traoré’s Historic Speech in Saint Petersburg’, *Afrique en Éveil*, 2023, 9, 22., <https://www.afriqueeneveil.org/en/post/russia-africa-captain-ibrahim-traore-s-historic-speech-in-saint-petersburg> (접속일: 2026. 7. 14.).

신생 좌파 정당인 아메리카공산당 간부들이 제2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냉전기의 정치적 연대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었다.⁴ 세기 전환기에 미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반세계화·대안세계화 담론보다 그 이전 냉전과 반제국주의의 역사와 기억이 다시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언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서방·반제국주의 담론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 나라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북한이었다. 북한은 동구권의 붕괴와 중국·베트남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에도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는 대결적 노선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오랫동안 ‘냉전의 마지막 유산’처럼 여겨졌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빈곤과 고립 속에 살아가는 국가라는 이미지 속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찰자들은 북한을 세계정치의 능동적 행위자라기보다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기이한 국가로 간주했다. 때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비판적인 이들은 북한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북한을 미국에 의해 고립을 강요받는 수동적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에 가까웠다. 독자적인 세계관에 따라 국제질서를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국가 행위자로 북한을 이해하는 접근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해 파병되어 러시아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고립된 독재국가가 아니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체제를 안정화하고 러시아·중국·이란 등과 전략적으로 공조하며 세계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일부 서방 논평가들

4 George Chesterton (2026), “The ‘Maga Communist’ Chanting ‘Down with USA’ at Ayatollah’s Funeral”, *The Times*, 2026. 7. 7., <https://www.thetimes.com/us/american-politics/article/the-maga-communist-chanting-down-with-usa-at-ayatollahs-funeral-7jql5nmjn> (접속일: 2026. 7. 14.).

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 묶어 ‘CRINK’라는 지정학적 집단으로 부르
기까지 했다.⁵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부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북한과 제3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현재 미국 페이엣빌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역사학자이자 안보
전문가 벤자민 영(Benjamin Young)의 저서, 『총, 게릴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
자: 북한과 제3세계 관계사』(*Guns, Guerrillas, and the Great Leader: North Korea and
the Third World*)는 이러한 질문에 나름의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본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반서방·반제국주의 정치가 다시 부상
하는 맥락에서 북한의 부상이 결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2021년에 영문으로 출간되었기에 출간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난 책
이지만,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참전, 이란 전쟁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시의성이 더욱 커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제에서 드러나듯 이 책은 북한이 제3세계와 맺어 온 오랜 관계의 양
상을 추적하면서, 북한의 활동 범위가 그동안 학계가 주로 다루어 온 전통
적인 관심사를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대외 전략은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주로 이해되었고, 이후에는 공산권이
라는 맥락에서 소련·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아가 동아시아 냉전이라는 차
원에서 일본·베트남과의 관계도 추가로 조명되면서 북한의 시야와 활동 범

5 Mona Yacoubian and Briana Winslow (2025), ‘CRINK Diplomatic Ties: A Broader
Tilt Toward the Global South’, CSIS, 2025. 9. 26., <https://www.csis.org/analysis/crink-diplomatic-ties-broader-tilt-toward-global-south> (접속일: 2026. 7. 14.).

위를 복원하려는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⁶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을 한반도와 공산권, 동아시아라는 중요한 맥락 속에 계속 위치시키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어떻게 ‘세계’를 상상하고 그 속에서 움직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한반도 냉전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확장한다. 예컨대 김일성 시대에 등장한 주체사상이 세네갈에서 가봉에 이르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어떻게 흔적을 남겼는지, 나아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 급진 조직인 흑표당마저 주체사상을 인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낯설지만 흥미로운 사실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상당한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물론 본서의 주제와 내용을 완전히 새롭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본서는 21세기에 들어 크게 성장한 냉전사 연구, 그중에서도 ‘지구적 냉전사’ 연구의 전통 위에 명확히 자리 잡고 있는 저작이다. 2005년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를 출간한 이래 본격화된 지구적 냉전사 연구는 냉전을 단순한 미소 초강대국 경쟁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어 온 하나의 역사적 시대로 파악해 왔다.⁷

6 국내에 출간된 저작들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선즈화(2017), 김동길·김민철 옮김, 『최후의 천조: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안드레이 란코프(2014), 『소련 공산당과 북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도미엔(2022),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엄밀한 냉전사 책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냉전의 맥락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저작으로는, 테사 모리스-스즈키(2008),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7 최근의 냉전사 연구 동향을 소개해주는 국내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 노경덕(2012), 「냉전사와 소련 연구」, 『역사비평』 101호, pp. 316-336; 노경덕(2021), 「구식 냉전 연구와 신식 냉전사: 세르히 플로히의 『알타』와 오드 아르네 베스타의 『냉전의 지구사』」, 『역사비평』 134호, pp. 441-466; 이주영(2015), 「미국 사학계의 새로운 냉전사 연구」, 『역사비평』 110호, pp. 86-111; 이동기(2015), 「독일 냉전사 연구의 관점과 주제들」, 『역사비평』 111호, pp. 260-292.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조명된 공간이 바로 제3세계였다. 지구적 냉전사 연구는 냉전이 유럽의 운명을 둘러싼 대립에서 출발했지만, 곧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기 상이한 발전 모델과 정치적 정당성을 대표했다. 이에 따라 제3세계 각국의 현대사가 냉전과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었는지, 반대로 제3세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냉전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등장했다.⁸ 또한 미국과 소련뿐 아니라 프랑스와 동독 같은 유럽 냉전의 주요 행위자들, 나아가 이집트·중국·인도네시아와 같은 탈식민 국가들이 냉전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려내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축적되었다.⁹ 이 책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연구 전통 위에 북한이라는 사례

8 베스타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 『냉전의 지구사』는 국내에 출간된 바가 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2020), 옥창준 외 옮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예코리브르. 지구적 냉전사 연구 전체를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번역·출간된 연구서 가운데 다음의 저작들은 좋은 참고가 된다. 이들 저작은 동아시아 냉전을 주로 '극북'의 대상으로 설정해온 한국 냉전사 연구의 실천적 문제의식과는 달리, 냉전을 역사학이 탐구해야 할 하나의 역사적 시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한다. 냉전과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그렉 브라진스키(2011), 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함께; 냉전과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오드라 J. 울프(2017), 김명진·이종민 옮김, 『냉전의 과학: 원자 무기에서 달 탐험까지, 미국은 왜 과학기술에 열광했는가?』, 궁리; 냉전기 소련의 국가 전략과 정치에 대해서는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2016), 김남섭 옮김, 『실패한 제국: 냉전시대 소련의 역사』, 아카넷 참조. 동아시아 냉전의 주요 전선인 금문도를 다룬 연구로는 마이클 스조니(2020), 김민환·정영신 옮김, 『냉전의 섬, 전선의 금문도』, 진인진 참조. 아시아의 탈식민과 냉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폴 토머스 체임벌린(2023), 김남섭 옮김, 『아시아 1945-1990: 서구의 변영 아래 전쟁과 폭력으로 물든』, 이데아 참조.

9 제2세계 내부의 중소 경쟁과 그것이 제3세계에 미친 영향을 복원하려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저작들을 참고할 수 있다. Jeremy Friedman (2015), *Shadow Cold War: The Sino-Soviet Competition for the Third Worl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Jeremy Friedman(2022), *Ripe for Revolution: Building Socialism in the Third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서아시아 지역의 냉전을 다룬 연구들은 동아시아 냉전을 조명할 때에도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걸프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쟁을 냉전과 탈식민 사회혁명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Abdel Razzaq Takriti (2016),

를 본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지구적 냉전사 연구의 지평을 보완하고 확장했다는 데 있다.

저자 벤자민 영은 북한의 제3세계 개입을 관통하는 네 가지 축을 설정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냉전의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변형되며 쇠퇴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탈식민 발전의 모범 국가로 홍보하는 것. 둘째, 민족 해방운동과 신생 독립국을 지원하는 것. 셋째, 남한과 외교적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는 것. 넷째, 김일성과 제3세계 지도자들의 개인적 관계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네 축은 북한이 자국과 별다른 접점이 없어 보이는 제3세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동기를 설명해 준다. 우선 북한은 남한과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 모델과 정치적 정당성이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며, 이는 제3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남북한의 외교 경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제3세계 개입은 한반도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북한은 두 국가가 국내 정치에 행사하는 영향력,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이 제기한 이념적 도전에 맞설 또 다른 정당성의 원천을 필요로 했으며, 저자는 그것이 바로 제3세계에서 획득한 ‘명성’이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유격대 국가’로서의 북한, 즉 항일 빨치산 무장투쟁을 국가 정체성으로 내세운 북한의 자기 이해는 196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반제국주의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제3세계 지도자

Monsoon Revolution: Republicans, Sultans, and Empires in Oman, 1965–1976, Oxford University Press. 냉전과 지구적 게릴라 투쟁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형성해 간 과정을 추적한 연구로는 Paul Thomas Chamberlin (2012), *The Global Offensive: The United States,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and the Making of the Post-Cold War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냉전기 미국의 반공 동맹이 지닌 자율성과 독자적 행위자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Roham Alvandi (2016), *Nixon, Kissinger, and the Shah: The United States and Iran in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출한 것 역시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권위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정당성 자원으로 기능했다.

이 책은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북한의 제3세계 개입을 시대별로 추적한다. 먼저 1·2장에서는 김일성 시기 제3세계 정책의 형성과 고조 과정을 다루고, 3장에서는 1970년대 동아시아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축적한 제3세계에서의 명성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어 4·5장에서는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 이행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이념적 헌신은 약화되고, 대신 외화 획득과 첩보 활동 등 보다 도구적인 목적이 강화되는 한편, 점차 폭력과 테러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제3세계의 관계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기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 역사 연구가 극도로 어려운 북한이지만, 제3세계와의 관계사는 북한이 대외 교류 과정에서 남긴 다양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저자는 『로동신문』과 같은 북한의 공개 자료는 물론, 『평양 타임스』(Pyongyang Times)와 『조선중앙통신』(KCNA)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영문 선전물을 폭넓게 검토한다. 물론 북한의 대외 선전은 국가의 편집 과정을 거쳐 선별된 서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생산된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한의 대(對)제3세계 정책을 면밀히 추적한 각국의 외교문서를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냉전을 세계적 차원에서 관리했던 미국은 제3세계에서의 북한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와 외교문서를 남겼기에 매우 중요한 자료 원천을 제공한다. 제1세계 각국이 남긴 자료에는 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의 외교 문서도 포함된다. 특히 저자는 북한과 외교적 경쟁을 벌였던 남한 외교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를 폭넓게 인용한다. 한편 북한의 대외활동이 언제나 공산권 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기록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우드로윌슨센터 역사·공공정책 프로그램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된 소련·동독·폴란드 등의 외교문서와 북한 관련 평가를 두루 참고한다. 여기에 북한이 활동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의 기록까지 더해진다. 이처럼 저자는 제한된 북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 기록을 제1세계·제2세계·제3세계가 남긴 관찰 기록과 병치하고 상호 대조함으로써, 냉전기 북한의 제3세계 외교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책의 전개는 지구적 냉전시 연구에 익숙한 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구성을 취한다. 책의 이야기는 제3세계 냉전이 본격화된 195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유럽 제국주의가 급속히 쇠퇴하면서 탈식민 정치가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였고, 그중에서도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인도·인도네시아·이집트 등 신생 독립국들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어 가나를 시작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독립국들이 잇달아 탄생하면서 탈식민 세계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주권 원칙에 기반한 독자적 발전을 모색했고, 미국·소련·중국은 제3세계 신생국들을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 원조와 군사 지원은 물론 첩보 활동과 직접 군사개입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며 경쟁을 벌였다.

제1장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북한이 1956년부터 1967년까지 제3세계에서 어떻게 ‘명성’을 쌓아 갔는지를 서술한다. 북한은 탈식민 정치에 관여한 공산 진영 내부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은 명백히 공산 진영에 속했지만 소련이나 중국처럼 다른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대국의 지위나 제국적 과거를 지니지 않았고, 여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소련의 위성국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을 신생 독립국들의 눈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보이게 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1950년대 후반 이후 두 반제국주의 혁명국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한 사회주의 혁명국가 쿠바였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벌이던 북베트남이었다. 두 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 진영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국가 전략을 추구했다. 북한은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제3세계에서 외교적 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장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지구적 김일성주의’ 기획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본다. 탈식민화와 냉전의 맥락에서 이 시기는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고 온건한 반동 세대가 퇴조하는 한편, 더욱 급진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분출하던 때였다. 북한 내부에서는 1967년 갑산과 숙청 이후 김일성의 절대적 지도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북한은 소련·중국·쿠바와 함께 멕시코·스리랑카·남예멘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반제국주의 무장단체와 정부를 지원했으며, 이를 김일성의 지도 원리를 국제화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제2장은 북한의 김일성주의 ‘수출’이 절정에 달했던 이 시기에 북한이 영화와 사진전, 언론 광고까지 총동원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스스로를 세계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계적 행보는 제3장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를 북한을 넘어 모든 피억압 인민의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도 원칙으로 선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선전은 현지의 실제적 필요보다 김일성 개인숭배와 북한의 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치중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많은 경우 북한의 선전 활동이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제3장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 북한은 미국의 흑표당에서 탄자니아의 우자마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광범위한 활동 반

경을 유지했고, 새롭게 정립된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관련 학술 세미나를 후원하는 등 지구적 개입을 한층 체계화했다. 그러나 장 제목인 「김일성의 ‘조선 우선’ 정책」이 시사하듯, 이 시기는 북한의 대외활동이 지구적 탈식민화와 세계혁명이라는 원대한 이상에서 점차 북한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냉전 정치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에 직면한 미국은 닉슨 행정부 아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소련과는 데탕트(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한편 계속해서 악화되는 중소 관계로 인해서 북한이 속한 공산 진영 내부의 분열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은 북한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북한은 1970년대 내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적대하는 중국과 소련 어느 한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외교노선을 모색했다. 여기에는 남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층 커져만 가는 김일성의 위기의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냉전 질서의 변화와 공산권 내부의 갈등, 남한의 성장까지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초기에 품었던 이념적 원대함은 점차 현실적 필요에 자리를 내주었다. 북한은 해외 군사원조에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제3세계 정책에서도 실용적 계산의 비중을 확대해 갔다. 이 시기 북한 외교의 대표적 성과가 바로 소련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루어낸 비동맹운동 가입이었다. 북한은 남한의 가입을 저지하는 동시에 자신은 회원국이 되는 데 성공함으로써, 스스로를 냉전 진영의 일원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맞서는 제3세계의 탈식민 국가로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제3세계 정책이 세계 혁명과 국제연대보다 국가 생존과 대남 경쟁을 우선하는 ‘조선 우선’ 노선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했다.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1980년부터 1983년, 그리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를 다룬다. 1980년대는 데탕트가 와해되고 ‘제2냉전’이 시작된 냉전의

최고조기이면서도,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며 냉전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이 맞이한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저자는 두 가지 측면이 북한의 인식과 행동을 규정했다고 본다. 첫째는 1970년대부터 가시화된 남한의 경제적 우위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북한이 체제 생존의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노쇠해진 김일성을 대신해 아들 김정일이 점차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운영에 김정일의 개인적 성향이 훨씬 강하게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 저자는 김정일 시대에 나타난 정책적 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으로 인해 제3세계 정책에서 집단체조(매스게임), 영화, 가극, 동상 제작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해야 했던 김정일이 더욱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선택했다는 점이며, 이는 버마(미얀마) 랑군에서 남한 정부 인사를 겨냥해 감행한 테러로 대표된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모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체제를 생존시켜야 한다는 김정일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문화예술은 군사원조나 이념 선전만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불한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반면 랑군 테러를 비롯한 대외 공작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적 단절을 초래했지만, 김정일에게 이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 외화를 확보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며 남한과의 경쟁을 이어가려는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후반 냉전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고, 경제난 속에서 무리하게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으로 그 정점을 맞았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동구권의 붕괴와 남한의 경제성장 앞에서 제3세계를 향한 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은 “더는 스스로를 세계 반식민주주의의 발전모델이자 국제주의의 옹호

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수주의 군주국이 되었다”. 저자는 결론에서 21세기에 들어서 북한과 과거 제3세계 국가 사이에 남은 희미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과거를 비추어주는지 묘사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3. ‘지구적 북한’의 의의, 그리고 ‘지역적 북한’ 복원의 필요성

이처럼 『총, 게릴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21세기 들어 탈식민 정치와 냉전사를 결합한 지구적 냉전사 연구의 전통 위에서, 북한이 어떻게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저작이다. 저자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 자료의 한계를 다양한 자료 원천을 활용해 최대한 보완하고, 지구적·지역적 냉전의 전개 과정 속에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적·복원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단순히 ‘김 일성 가문의 권력욕’으로만 설명하기보다, 세계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호 작용하며 행동한 하나의 행위자로 조명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북한상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냉전사와 비서구 탈식민화 역사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춘 독자라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현대사 속 북한’의 위치와 존재감을 새롭게 확인하는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책의 분량도 길지 않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짧은 분량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책의 단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구적 냉전과 탈식민화의 역사에 익숙지 않은 독자라면 이 책의 서술 방식이 다소 나열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대체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 특정 국가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추적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까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자는 북한의 활동과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관찰 기록이 제시되는 구도가 계속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이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인 북한의 앙골라 내전 개입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소련·중국·쿠바·자이르(콩고)·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앙골라 내전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개입 역시 독자에게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사례로 스쳐 지나가기만 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이 지닌 불가피한 한계이자 동시에 서술 전략이기도 하다. 우선 외국 연구자인 저자가 북한 내부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용 가능한 자료 자체가 적고, 평면적인 보고 위주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서술 역시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크다. 또한 이 책은 말 그대로 북한의 ‘지구적’ 활동을 다루는 저작이다. 만약 북한이 활동했던 모든 국가의 역사와 정치적 맥락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책의 분량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났을 것이고, 서술의 초점 역시 북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냉전사와 탈식민화 연구에 관한 몇 권의 중요한 저작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익힌 뒤에 이 책을 접한다면 더욱 큰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 이 책의 또 다른 의의는 북한의 제3세계 개입이 더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재성을 지닌 역사임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영문판 출간 이후 5년 동안 세계정치가 크게 변화하면서, 이 책은 오히려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시의성을 갖게 되었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고, 2026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대독전승절 열병식에 ‘화려하게’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반서방·반제국주의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의 변화로 인해 동아시아 밖에서도 북한과 연결된 역사적 기억이 계속 소환되고 있는 상태다. 이란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제2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 마지막 해외순방으로 평양을 방문

해 김일성을 만났던 사실 역시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북한과 이란의 관계사 역시 양국 관계를 단순히 ‘반미 독재국가’ 사이의 핵·미사일 협력이라는 기술적 차원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놓인 공유된 이념과 정치적 교류의 역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남한의 제3세계 외교와 비동맹 활동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오늘날 더욱 고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¹⁰ 남북한은 물론 동아시아와 제3세계의 관계사를 함께 복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지구적 권력 경쟁이 격화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여러 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남한의 제3세계 활동 역시 북한이라는 변수를 빼놓고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을 정면으로 다룬 이 책의 의의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냉전과 탈식민화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반도의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저작들이 계속해서 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이 책의 학술적 의의를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는다. 바로 ‘지구적(global)’ 접근이 종종 간과하는 ‘지역적(regional)’ 관점의 부재이다. 물론 이 책은 그동안 거의 공백에 가까웠던 북한과 제3세계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구가 상당히 축적된 동아시아 냉전 속 북한을 다시 상세히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책의 중심을 흐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세계화하고자 했던 핵심 이념인 주체사상만큼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성립이라는 북한 내부 정치의 맥락을 넘어, 지구적 맥락과 지역적 사상사의 맥락을 함께 엮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은

10 최근에 출간된 남한과 제3세계의 관계사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김도민(2025),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계 외교(1948~1976)』, 역사비평사.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접근은 책 전체의 문제의식과도 더욱 긴밀하게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양이 개시한 주체사상의 세계적 확산 프로젝트뿐 아니라,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된 지구적·지역적 맥락까지 함께 살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주체사상은 제2세계 국가들의 운영 원리이자 사고방식이었던 공산주의의 한 분파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치사상의 전통 위에서도 형성된 독특한 이념이었다. 특히 주체사상이 소련 공산주의와 중국 마오주의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체사상을 만들어 낸 지역 사상의 계보와 상호 교류는 냉전 지성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주제다.¹¹ 본서에서는 문화대혁명과 마오주의의 도전에 대해서도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언급되지만, 그 사상적 맥락까지 충분히 두텁게 복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주체사상을 배태한 북한의 사상 지형에서 일본이 미친 영향 역시 조금 더 탐구되었다면 지역적, 나아가 지구적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복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이른바 ‘천황제 파시즘’과 주체사상의 유사성을 단순한 표면적 유사성에 근거해 논하는 것은 정치한 역사 연구보다는 자극적 인상비평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간기부터 냉전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와 우익의 유기체적 민족주의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양자 사이의 인적 교류 역시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이다. 예컨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근대초극론과 동아협동체론을 수용했던 서인석·인정식과 같은 전향 사회주의자들이 해방 이후 북한에 남았고, 주체사상의 핵심 이론가인 황장엽 역시 전시기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¹² 이러한 명확한 인적 연결고리는 전시 일본의 정치사상이 북한에서 어

11 마오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줄리아 로벨(2024), 심규호 옮김, 『마오주의: 전 세계를 휩쓴 역사』, 유월서가.

12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유통된 전시 일본 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홍종욱 편(2017),

떠난 방식으로 수용·변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시 일본 본토에서 미키 기요시를 비롯한 전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본의 전시 이데올로기 형성에 깊이 관여했던 사례와도 비교될 수 있겠다.¹³

일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계 인식이 소련과 중국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식민 모국’이었던 일본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 일본 사상은 실제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지만, 그 안에는 구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아시아 혁명이라는 문제의식과 동남아시아·이슬람 세계·에티오피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세계 인식도 공존했다.¹⁴ 이러한 사상적 요소가 이후 북한에 유입된 소련식 공산주의 및 중국식 마오주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주체사상과 북한의 제3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주제다.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한편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 일본의 관계를 다룬 다음의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Leung은 일본 식민지기의 체제·사상적 유산과 북한 사회주의의 연속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특히 일본의 전시사상과 주체사상 사이의 일정한 평행성을 제시한다. 다만 1942년 「근대의 초극」 좌담회가 주체사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유사성을 하나의 연구 가설로 제시하는 데 머물고 있다. Ernest Ming-tak Leung, “The Japanese Factor in the Making of North Korean Socialism”,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19(2) (2020), pp. 235–237.

13 전향 좌익 사상가들이 어떤 식으로 전시 이데올로기에 기여했는지 조명하는 저작들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Hiromi Mizuno (2008),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Aaron Moore(2013), *Constructing East Asia: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4 일본의 전시 아시아주의와 그것이 20세기 지정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책을 참고. Cemil Aydin (2007), *The Politics of Anti-Westernism in Asia: Visions of World Order in Pan-Islamic and Pan-Asian Thought*, Columbia University Press; Kelly A. Hammond (2020), *China's Muslims and Japan's Empire: Centering Islam in World War II*,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아시아주의의 전후 유산으로서 이란의 탈식민 정치와 일본의 상호작용을 다룬 다음의 논문도 참고. Mikiya Koyagi (2024), “Pan-Asian Decolonization? Iranian Oil, Japanese Tankers, and the Nisshomaru Incident of 1953”, *Journal of World History* 35(4), pp. 651–674.

요컨대 차후에 냉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적 사상 계보의 관점이 북한 냉전사 연구에 보완된다면, 19세기부터 전개된 동아시아 근대를 냉전과 탈식민의 세계사에 접속시키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는 반제국주의와 시아파 이슬람을 결합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사상사가 비슷한 구도 속에서 풍부하게 축적되어 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슬람주의 사상사는 토착 이슬람 사상의 역사와 더불어, 19세기에 세속적 근대화론과 전통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슬람 근대주의가 20세기의 탈식민화와 냉전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추적해 온 연구 분야다.¹⁵ 동아시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이슬람주의 연구만큼 깊이 축적되어 있는지는 필자의 과문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슬람 세계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비서구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경향이라는 점이다. 아시아 각 지역과 국가 사이의 교류를 통해 20세기 세계사를 다른 각도로 서술하는 데 중동과 동아시아는 서로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¹⁶

주체사상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적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사

15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이란의 시아파 신학이 냉전기 이란 지식계에 유입된 마르크스주의뿐만 아니라,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프랑스 탈식민 사상과의 대화 속에서 혁명 이념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한 다음의 책이 있다. Hamid Dabashi (1993), *Theology of Discontent: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n*, New York University Press. 반둥 회의가 이란의 탈식민 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룬 다음의 연구도 참조. Siavash Saffari (2022), "Jalal al-e Ahmad's Gharbzadegi and the Spirit of Bandung: A Decolonial Reimagination of Development in Mid-Twentieth-Century Iran", *Asia Review* 12(1), pp. 131 – 169.

16 19세기 비서구 지역 사이의 상호 인식과 대안적 근대성의 형성을 추적하려는 연구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Aydin(2007)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오스만 지식인들이 일본을 비서구적 근대화의 모델로 인식한 과정을 다룬 연구로는 Renée Worringer (2014), *Ottomans Imagining Japan: East, Middle East, and Non-Western Modernity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Palgrave Macmillan; 아시아 내부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가 형성되는 과정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연구로는 Nile Green (2022), *How Asia Found Herself: A Story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상의 전개를 더욱 긴 시간축과 넓은 공간적 배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적 냉전과 탈식민 연구에도 지역 현장에 근거한 더 구체적인 관점과 지식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같은 사상적 계보 위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경쟁해야 했던 남한, 특히 박정희 시대가 어떠한 사상적 도전에 직면했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단서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총, 게릴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국내 출간을 계기로 냉전과 탈식민의 세계사 연구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논의와 후속 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저자 벤자민 영이 중국·쿠바·베트남 혁명이 제3세계 무장투쟁에 남긴 군사사상적 유산을 다룬 신간 *Reds, Revolutions, and Rebellions: How China, Cuba, and Vietnam Transformed Guerrilla Warfare*을 올해 7월 출간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 후속작 역시 조만간 한국에 소개되어 냉전과 혁명의 역사가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둘러싼 더욱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¹⁷

참고문헌

- 그렉 브라진스키(2011), 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함께.
- 김도민(2025),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계 외교(1948~1976)』, 역사비평사.
- 노경덕(2012), 「냉전사와 소련 연구」, 『역사비평』 101호, pp. 316-336.
- 노경덕(2021), 「구식 냉전 연구와 신식 냉전사: 세르히 플로히의 『알타』와 오드 아르네 베스타의 『냉전의 지구사』」, 『역사비평』 134호, pp. 441-466.
- 도미엔(2022),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마이클 스조니(2020), 김민환·정영신 옮김, 『냉전의 섬, 전선의 금문도』, 진인진.

17 Benjamin R. Young (2026), *Reds, Revolutions, and Rebellions: How China, Cuba, and Vietnam Transformed Guerrilla Warfare*, Cornell University Press.

- 벤자민 바버(2003), 박의경 옮김, 『지하드 대 맥월드』, 문화디자인.
-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2016), 김남섭 옮김, 『실패한 제국: 냉전시대 소련의 역사』, 아카넷.
- 선즈화(2017), 김동길·김민철 옮김, 『최후의 천조: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 안드레이 란코프(2014), 『소련 공산당과 북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 에드워드 S. 스타인펠드(2011), 구계원 옮김,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예세.
- 오드라 J. 울프(2017), 김명진·이종민 옮김, 『냉전의 과학: 원자 무기에서 달 탐험까지, 미국은 왜 과학기술에 열광했는가?』, 궁리출판.
- 오드 아르네 베스타(2020), 옥창준 외 옮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 이동기(2015), 「독일 냉전사 연구의 관점과 주제들」, 『역사비평』 111호, pp. 260-292.
- 이주영(2015), 「미국 사학계의 새로운 냉전사 연구」, 『역사비평』 110호, pp. 86-111.
- 줄리아 로벨(2024), 심규호 옮김, 『마오주의: 전 세계를 휩쓴 역사』, 유월서가.
- 테사 모리스-스즈키(2008),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 폴 토머스 체임벌린(2023), 김남섭 옮김, 『아시아 1945~1990: 서구의 변영 아래 전쟁과 폭력으로 몰든』, 이데아.
- 홍종욱 편(2017),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Russia-Africa: Captain Ibrahim Traoré’s Historic Speech in Saint Petersburg” (2023), *Afrique en Éveil*, 2023. 9. 22., <https://www.afriqueeneveil.org/en/post/russia-africa-captain-ibrahim-traoré-s-historic-speech-in-saint-petersburg> (접속일: 2026. 7. 14.).
- Alvandi, Roham (2016), *Nixon, Kissinger, and the Shah: The United States and Iran in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 Aydin, Cemil (2007), *The Politics of Anti-Westernism in Asia: Visions of World Order in Pan-Islamic and Pan-Asian Thought*,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mberlin, Paul Thomas (2012), *The Global Offensive: The United States,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and the Making of the Post-Cold War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terton, George (2026), ‘The ‘Maga Communist’ Chanting ‘Down with USA’ at Ayatollah’s Funeral’, *The Times*, 2026. 7. 7., <https://www.thetimes.com/us/american-politics/article/the-maga-communist-chanting-down-with-usa-at-ayatollahs-funeral-7jql5nmjn> (접속일: 2026. 7. 14.).
- Dabashi, Hamid (1993), *Theology of Discontent: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n*,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iedman, Jeremy (2015), *Shadow Cold War: The Sino-Soviet Competition for the Third Worl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riedman, Jeremy (2022), *Ripe for Revolution: Building Socialism in the Third World*,

-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 Nile (2022), *How Asia Found Herself: A Story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Yale University Press.
- Hammond, Kelly A. (2020), *China's Muslims and Japan's Empire: Centering Islam in World War II*,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Koyagi, Mikiya (2024), “Pan-Asian Decolonization? Iranian Oil, Japanese Tankers, and the Nisshomaru Incident of 1953”, *Journal of World History* 35(4), pp. 651–674.
- Leung, Ernest Ming-tak (2020), “The Japanese Factor in the Making of North Korean Socialism”,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19(2), pp. 225–251.
- Mizuno, Hiromi (2008),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re, Aaron (2013), *Constructing East Asia: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ffari, Siavash (2022), “Jalal al-e Ahmad's Gharbzadegi and the Spirit of Bandung: A Decolonial Reimagination of Development in Mid-Twentieth-Century Iran”, *Asia Review* 12(1), pp. 131 – 169.
- Stent, Angela(2024), ‘Russia, the West and the ‘World Majority’’, *Russia Matters*, 2024. 1. 25., <https://www.russiamatters.org/analysis/russia-west-and-world-majority> (접속일: 2026. 7. 14.).
- Takriti, Abdel Razzaq (2016), *Monsoon Revolution: Republicans, Sultans, and Empires in Oman, 1965–1976*, Oxford University Press.
- Worringer, Renée (2014), *Ottomans Imagining Japan: East, Middle East, and Non-Western Modernity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Palgrave Macmillan.
- Yacoubian, Mona and Briana Winslow (2025), “CRINK Diplomatic Ties: A Broader Tilt Toward the Global South”, CSIS, 2025. 9. 26., <https://www.csis.org/analysis/crink-diplomatic-ties-broader-tilt-toward-global-south> (접속일: 2026. 7. 14.).
- Young, Benjamin R. (2026), *Reds, Revolutions, and Rebellions: How China, Cuba, and Vietnam Transformed Guerrilla Warfare*, Cornell University Press.

